

#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 '2021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 마련... 기초학력 정책적용 시범학교 등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라북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기본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기초학력 지원체

제 구축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 ▲기초학력 향상 내실화 등 3개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 현장 맞춤형 지원체제를 마련·운영한다. 더딤원인에 따라 '수업 안 지원-학교 안 지원-학교 밖 지원' 등 3단계 학습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기초학력 마중물학교도 운영한다. 기초학력 마중물학교는 두리교사제 운영 시범학교와 기초학력 정책적용 시범학교 두 가지를 총칭한다.

특히 기초학력 정책적용 시범학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협력 수업 모델을 개발, 학습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초·중·고교 12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교과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더딤까지도 함께 치유하고 도와주는 맞춤형 학습지원학교와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은 올해도 계속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운영,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연수 운영, 찾아가는 학교(교사)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초학력 정책자문단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단위학교 기초학력협의체 구성·운영, 내외부 강사 활용, 포괄 학습 나눔활동 지원, 생애주기별 집중지도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내실화를 꾀한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몸, 마음, 환경을 살펴 배움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목표"라면서 "기초학력에서 참학력까지 학생들이 자기 삶을 살아갈 기초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 공로과기부 장관 표창

### 전북대 심현주 교수, 생명의료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공로

전북대학교 심현주 교수(약학과·사진)가 국가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조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심 교수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받은 '스티렌'과 2011년 위장관운동 촉진제 '모티리론' 개발,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 등의 개발에 기여하는 등 신약개발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더불어 차세대 항생제인 '시백스트로', '자이데나' 개발의 노후를 활용해 약동력학, 분석자료를 연구했다.

한편 지난해엔 전북대 약학대학이 개교 6개월 만에 수주한 68억원 규모의 LED식물공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첨단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을 맡아 '의약품 대마'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IMF팀, 오아시스 해커톤 앱 개발 챌린지 '특별상'

전북대학교 송상훈 학생(사진)의 2명으로 구성된 IMF(I Make Future)팀이 최근 열린 제1회 오아시스 해커톤 앱 개발 챌린지 대회에서 오아시스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호남권 대학생 개발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전북대와 전남대, 조선대, GST 학생들이 참여해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환경 및 사회문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제로 개발이 이뤄졌다.

IMF팀은 대학교 한정 프리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같이 사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20년도 글로벌 해커톤 경진대회 1위 및 2017년도 K-해커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뉴노멀 산학협력 교육플랫폼 구축... 비전대, 호남제주권 LINC+ 참여대학과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2일~3일 이틀간 호남·제주권 LINC+사업 6개 참여대학과 업무교류 협약체결 및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파크하이얏트에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됐다. 이날 이상석 LINC+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협의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7개 대학 LINC+사업단장 및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LINC+사업 운영 및 Post-LINC+사업 준비를 위함이다.

7개 대학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뉴노멀 산학협력 교육플랫폼 구축 및 연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공동 개최, ▲성과포럼 공동개최 및 우수사례집 제작, ▲각 대학의 현장실습 인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2일~3일 이틀간 호남·제주권 LINC+사업 6개 참여대학과 업무교류 협약체결 및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상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넓혀 가기로 했다.

또한 성과포럼에서는 각 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5차년도 사업 및 Post-LINC+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한다

### 위탁기관 운영 내실화로 위탁학생 교육활동성장 지원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대안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 대안교육지원센터 북카페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30명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안교육 수요가 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배움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를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위탁교육기관 전문인력의 학생 교육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운영 지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탁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 안내 ▲예산집행 요령 ▲비대면 수업 활용 능력을 키우는 화상수업 안내 ▲대안교육지원센터 소개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탁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화상수업 방법 안내 등 위탁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지침 이해를 도와 내실있게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주)완주교육지원청사를 리모델링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위탁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장은성 기자

##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 공모

### 전북교육연수원, 수요자 맞춤 연수 22일부터 3월5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은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 팀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공무직원이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다.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는 기존 연수의 틀을 벗어나 직무나 관련 소양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수팀을 구성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이번 연수는 2020년에는 13팀, 25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20팀을 선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팀은 연수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은 심사 후 3월 중 연수팀을 확정 발표하며, 연수 운영은 준비 기간을 거쳐 5월~8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인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가 한국 패럴림픽의 생생한 체험과 기억을 담은 저서 '패럴림픽, 그들의 열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저서는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원력 퍼스 지원 사업 중 '스포츠콘텐츠의 생태계를 선도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과제가 선정된 이후 1년여간 공력을 들인 결실이다.

특히 스포츠가 주는 인간의 무한한

## 우석대, '패럴림픽, 그들의 열정' 발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단순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선수들의 피곤 어린 극복기와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한 내면의 모습을 전달하여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천호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집필을 통해 스포츠, 기억과 기술 그리고 기록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패럴림픽인 여러분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

제7회 우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